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스트레스 치유에 관한 경험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s Regarding the Healing of Job Performance Stress of Fire Fighting Officers

김종선

선문대학교 통합의학과 가족상담

Jong-Sun Kim(kjss0647@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7명의 현직 소방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7개의 주제묶음과 5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범주화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다양한 민원해결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강박적 불안, 우울감, 수면장애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수행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소명감을 보이지만 퇴직 이후 삶에 대해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업적 소명의식과 동료애, 가족의 지지 등의 긍정적 경험으로 상쇄되고 치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신체적 문제와 정서적·심리적 문제들로 발전되어 직업적 소명이나 동료애, 가족 지지 만으로는 치유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직무 환경개선 뿐만이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과 직업소명의식과 동료애 강화,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복합적이고 체계화된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심어 : | 소방공무원 | 직무수행 | 스트레스 | 치유경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n depth the experiences regarding the healing of stress that takes place in the process of the job performance of fire fighting officers. For this, by having seven incumbent fire fighting officers as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th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had been conduc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experiences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Colaizzi, the 17 topic bundles, 5 subcategories, and 3 categories were derived.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ly, it appeared that the stress resulting from the job performance in the diverse processes of solving the petitions experienced as the obsessive anxiety, feeling of depression and sleep disorder, etc.

Secondly, it had appeared that fire fighting officers show the strong feeling of pride and sense of calling regarding the job performance, but their dread regarding the life after the retirement was high.

Thirdly, it appeared that such stress were offset and healed through the positive experiences, including the professional vocation, companionship and support by the family, etc. Because the high job stress gets developed into the continuous and complex physical problems and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it shows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healing with only the professional calling, companionship and support by the family. As such, for the healing of stress that takes place in the job performance by fire fighting officers and not just for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s that are related with the job, but for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this research arrived at the point of the suggestion that the operations of the complex and systematized supporting program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vocation and companionship, emotional support by the family etc., must be carried out.

■ keyword : | Fire Fighting Officers | Job Performance | Stress | Healing Experience |

1. 서론

우리나라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30.]고 명시되어 있다[1]. 소방공무원 업무 또한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활동 외에도 생활민원, 화재예방교육, 안전검사, 재난현장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살펴보면 직무환경의 위험성, 긴급성, 활동의 특수성, 팀워크의 필요성, 정신력과 강한 체력 등이 있다[2]. 직간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직무환경은 소방공무원의 육체적 능력뿐 아니라 정신적 능력까지도 극한으로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

이런 특수한 직무환경은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 흡입, 무거운 장비 착용 및 조작으로 체력적 한계를 경험하고, 교대근무는 생체리듬 문제, 사회적인 소외감, 좁은 대인관계와 여가 활동 및 가족 간 친밀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대근무는 시·도 자치별 여건에 따라 2교대에서 3교대 근무제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하면 근무여건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3].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은 직무 스트레스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이중협은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직무몰입과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4].

소방공무원 직무활동에서 직무몰입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높이고, 구조 및 구급 등 소방직무 활동에서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직무몰입은 직무환경에서 생기는 직무 스트레스와 PTSD 증상으로 방해 받는 경험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충격적이고 참혹한 사고현장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더불어 우울, 자살충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6].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은 첫째, 침투적 사고가 반복적으로 기억이 재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회피 증상으로, 고통 기억과 관련된 모든 것을 회피하며, 셋

째, 부정사고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Distorted (왜곡된) 믿음을 갖는다[7]. 넷째, 각성 및 과잉반응, 짜증, 감정폭발, 수면장애, 집중장애 등을 보이는데 이 증상들은 소방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유도하여 정신적·행동적 문제인 우울, 수면장애, 알콜사용장애 등 심각한 병리증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8].

김태우 등은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경험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고 소방공무원은 직업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직무수행을 하지만 소방공무원직무상 PTSD 증상 경험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험은 부정기억 매물, 무감각, 과각성 등의 회피 반응을 보이며, 회피반응은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짜증, 분노 표출, 음주, 도박, 외도 등의 회피행동을 강화하거나 병리적 우울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시행은 긍정적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소방청 소방정책과 주관으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힐링캠프,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긍정적 반응보다는 거부감이 크다[11].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개인 상담과 함께 가족 상담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되는 사례는 극히 적다. 선행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족에게도 전이된다는 것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10]. 심리상담지원 사업도 지역적 차이가 있고, 심리 상담인식부족 그리고 치료기관 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확대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심리 상담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개인 간 인식차이를 보였다. 이유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결여 및 홍보부족, 사전육구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심리 상담의 계속성보다는 전수조사 식의 일회성 상담으로 심리상담사와의 신뢰성 확보문제 등이 있다.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그리고 사전 사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피드백에 관심을 두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하여 김광식과 박정민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 및 피로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직무환경인 직무동기, 인사만족,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며 이는 심리적 탈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2][13]. 문유석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자율성, 중요성, 역할갈등, 과부화로 보고 직무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14]. 최근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및 외상 관련 연구와 직무 개선 중심연구가 활발하게 다루어져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지만 대부분 양적 연구이며 소방공무원 자신의 직무수행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심층면접이 힘들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 경험을 어떻게 수용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요인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를 어떻게 치유 경험을 하는가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가는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 체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16]. 현상학의 기본적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다[17]. Husserl은 '사상 그 자체로 돌아가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생생한 일상경험들로 이루어진 생활세계(life world)야 말로 모든 학문적 노력의 기본 출발점이고 그 노력이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17]. 따라서 인간 경험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상에서 경험된 것을 밝히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인간의 생

생한 경험을 기술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특정 현상 경험의 의미, 구조,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며, 연구자의 선이해를 괄호 속에 묶어 두는 현상학적 환원은 괄호치기(bracketing), 배제(ausschaltung), 판단중지(epoché)를 의미하며 연구자의 이론적 편견이나 선지식을 참여자의 기술내용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16][17].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진술한 맥락 속에 들어있는 사실적 본질 구조와 의미를 알기 위해서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Colaizzi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중 개인의 진술보다 일반적인 진술들을 단계적으로 추상화하는 방법으로 참여자 확인을 통해 연구자가 맥락적 의미왜곡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연구자선입견을 여과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 경험의 속성보다는 참여자 전체의 경험 속성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개인이나 이론도출에 상대적 용이성이 있다[17][18][25]. 그리하여 연구 참여자의 전체 경험인 일반적인 속성을 도출하여 개입서비스나 이론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다[25][26].

2. 연구 참여자 및 표집방법

소방공무원은 근무특성 상 교대근무 체제와 강도 높은 근무환경 등으로 연구 참여자 선택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의 신중성과 적절성 확보를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경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소개 받아서 진행하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특성으로 지역소속 119안전센터, 소방서본부, 지역 소방서 소속으로 소속을 다양하게 구성하였고, 근무경력에도 차이를 두었다. 크고 작은 화재 현장 경험과 다양한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구급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로 계급과 연령, 성별에 다양성을 두고자 하였다. 이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코드 | 연령 | 성별 | 결혼 | 직무 | 재직기간 |
|----|----|----|----|------|------|
| A | 55 | 남 | 유 | 행정 | 27년 |
| B | 37 | 남 | 유 | 구조 | 7년 |
| C | 53 | 남 | 유 | 화재진압 | 24년 |
| D | 32 | 여 | 유 | 구급 | 7년 |
| E | 45 | 남 | 유 | 구조 | 16년 |
| F | 32 | 남 | 무 | 화재진압 | 3년 |
| G | 40 | 남 | 이혼 | 화재진압 | 10년 |

를 위해 소방공무원직무특성을 언어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 까지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개별적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근무여건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뢰형성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빨랐다. 또한 직무 상황에도 공감부분이 많아 편안하게 진행되었으며, 센터장이나 지역 소방서장의 협조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면담은 1회~2회 진행하였고, 긴급 출동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중단 된 경우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전화통화 및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연구목적 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면담내용에 대한 녹음 동의와 필사 내용의 비밀보장에 대해 부연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였다. 연구동의서 작성과 연구 참여가 중단될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심층 면접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사실적 구조와 의미를 찾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분석절차에 따라 구조화된 자료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25-27].

첫째, 7명의 소방공무원의 직무 경험에 대한 느낌과 이해를 얻기 위해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직무 경험에 대한 본질, 구조, 맥락을 나타내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 하였다. 넷째,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에서 숨겨진 의미를 도출한 주제들로 다시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16-18][26].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단위와 주제 묶음들은 원 자료와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자 한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경험의 본질적 구조화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분석한

자료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를 활용한 확인과정을 거쳤다.

4. 엄격성을 적용한 평가방법

본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응성, 일관성, 중립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16][28].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확보를 위해 판단중지와 환원을 통해 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면접내용을 그대로 전사 후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 주고 다르거나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질문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도출된 주제가 참여자 경험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을 거쳤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진술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내용자료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자료가 포화 되었을 때 면담을 종결하고 연구 참여자 외의 다른 소방공무원 1명에게 연구결과를 읽어주고 자신 경험을 비추어 내용에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관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수료자 1명과 상담학전공 교수에게 점검을 받는 과정을 통해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관 배제를 위해 모든 편견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중립성 유지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 등에 대한 선이해, 선입견, 편견 등이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경험과 정서가 포함되는 편견과 주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27][28].

III.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으로 남성 참여자 6명과 여성 참여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분포는 32세-55세

로 평균 연령은 35세다. 계급은 소방사 2명, 소방장 1명, 소방교 1명, 소방위 2명, 소방경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근무지 형태는 소방서 소속 2명, 본부 소속 1명, 센터소속 4명, 특수구조대 1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총 근무경력은 3년에서 27년으로 평균 1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며 소방공무원시험을 통한 임용이 대부분이며 특전사 출신 직업군인 또는 간호사 등의 전직을 가진 후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 경험을 Colaizzi의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17개의 주제 묶음과 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5개의 범주는 '과중한 직무수행', '가족갈등', '직업적 소명의식', '긍정적 가족 지지', '나를 위한 치유'이다.

표 2.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경험

| 주제 | 하위범주 | 범주화 |
|-----------------------|----------|------------|
| 1)수면장애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 과중한 직무수행 | 스트레스 발생 경험 |
| 2)힘든 민원상대 | | |
| 3)교대근무로 깨진 생활리듬 | | |
| 4)사고현장에서 몸이 먼저 반응 | | |
| 5)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는 내 책임 | | |
| 6)힘든 인간관계 | | |
| 7)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소진 경험 | | |
| 1)가족에게 전이되는 직무 스트레스 | 가족 갈등 | |
| 2)가족 대화단절로 우울 경험 | | |
| 1)사고현장에서 두려움 동료애로 극복 | 소명의식 | 스트레스 치유 경험 |
| 2)고맙다는 말에 생기는 소명감 | | |
| 3) 꿈을 이룬 직업 | | |
| 1)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함 | 긍정적 가족지지 | |
| 2)가족이 있어 외상극복 함. | | |
| 1)치유 받고 싶은 마음 | 나를 위한 치유 | 퇴직 후 경험 |
| 2)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 | |
| 3)소속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 | |

1. 과중한 직무수행

1.1 “수면장애 원인은 직무 스트레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24시간 근무 하고 2일 휴식하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는 2교대에 비하면 좋아진 근무형태이지만 여전히 생체리듬에 혼란으로 직무몰입에 악영향 미치고 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직무 스

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참여자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의 반복으로 대부분 수면곤란에서 수면장애까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였다.(참여자 A,B,C,D,E,F)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하얗게 세죠.

힘들어요. 머리를 땅에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들이 쯤 부럽죠.(참여자 A)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특히 잠 못 자고 뒤척 이죠. 다음날 다시 생각하고...해결될 때까지...힘들어요. 다들 그렇다고하는데 (참여자E).

1.2 “힘든 민원상대.”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반말 및 욕설, 거친 행동과 취객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길질을 당하여 순간 정신을 놓치는 경험과 긴급 상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후 출동 시 불안감 및 두려움은 자괴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였다. 가끔은 이직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음을 표현하였다.(참여자 B,D,E)

여기는 농촌지역이라 한밤중 산길을 갈 때 사고위험이 있죠. 그래서 속도 못내요. 그런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되죠. 출퇴근 시간대 걸리면 더 지체되지요. 양보 받아도 그래요. 구급차를 보자마자 차를 발로 차고 죽으면 책임지라고 아들인지가 늦게 도착했다고 진상을 부리죠. 민원고발 내겠다고 그럴 땐 정말 그만두고 싶지요.(참여자,B)

반말은 다반사여 이 지역은 노인들이 많아요. 뇌출혈 등 위급 상황이 많은데 차 험하기 문다고 뒤에서 막 욕하고... 반 말 좀 안 했으면 좋는데 하도 들어서 내가 염색을 안 해요. 요즘은 흰머리 보고 그러지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슬프죠. 나보다 어린데 너 몇 살이야 반 말하면 다행이죠. 욕까지 듣는 건, 저는 정말 싫어요. (참여자, E)

1.3 “교대근무로 깨진 생활 리듬.”

참여자들은 3교대 근무로 가족 간 생체주기와 생활 리듬이 달라 가족모임이나 가족회식의 참석이 힘들며

자녀 성장 이후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더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가족 간 의사소통부족과 유대감 상실로 더욱 소외감, 외로움으로 우울감을 더 느끼게 되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친구들과 교류시간이 줄어 사회적 소외감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석자 A,B,C,D,E,F)

거의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많았는데 전에 비해 3교대 근무로 전환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이 이 정도여... 많이 아쉽죠.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난 못했어요. 몰랐고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그렇지 안사람한테 많이 미안하지(참석자A)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느라 잠도 못 자고 출근할 때도 많죠. 잠을 자야 하는데, 남편 퇴근하면 아이 맡기고 바로 출근하지요. 맞벌이 하는 사람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힘들어요. 육아대책에 대해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고, 관심도 없겠지만. 힘들면 그만 두면 돼하면 할 말은 없어요. 잠을 자야하고 아이와 놀아주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화나고 어렵죠. (참석자D)

제사나 가족 행사에 친척이나 식구들이 당연히 제외시켜요. 서운하고 도리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직업이 이런데 사람도 부족해 휴가 내기도 힘들어 서로 대신 근무해 주며 그러죠. 부탁이 쉬운 것도 아니고...(참석자F)

1.4 “사고현장에서 몸이 먼저 반응.”

참여자들은 위험 상황이나 화재 위험이 감지되면 근무시간 여부를 떠나 사고현장에 투입해서 구조 및 구급활동, 현장지원 활동을 한다. 본능적으로 몸 반응하는 것은 직업적 소명감으로 생각한다.(참석자A,C,E.)

출근하는 데 마주 오던 차가 충돌사고를 내서 화재가 발생한 거야 우선 연락하고 차량용 소화기로 우선 초기 진압을 했지 신고하고 인계하고 빨리 대응했는데 이걸 어디는 가든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소명감이죠. (참석자C)

어디를 가도 소화기 망가진 것만 보이지요. 오지않이

생기죠. 사고현장 보면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아요. 좋게 말하면 직업적 소명감이라고 하나.... (참석자E)

비번 때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바로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 수습하고 신고하고 다친 사람 구조해서 살피고, 이상하게 어디를 가도 생겨 일이.(참석자A)

1.5 “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는 내 책임.”

참여자는 환자이송 중 생기는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와 한계의 모호성을 이야기한다. 인명구조 등 사고현장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참석자,BE)

응급상황이라 신호 무시하고 가죠. 사실 서로 운전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계급 낮은 대원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송 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외제차인데 살짝 스크래치가 났죠. 요즘 외제차가 많아졌잖아요. 경미한 정도인데 연식도 있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는 동료도 없었어요. 재수가 없었네 하는 식이죠. 엮이기 싫은 거죠. 민원 처리 잘하고 센터평가 안 좋게 나오니까 무조건 사과하라고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사유서 쓰면 처리 되지만 재물 손상사고는 일반인과 똑같이 내 책임으로 처리하죠. 길 좁고 주차한 차들이 많고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정말 서운하고 일할 맛 안나요. 그럴 땐(참석자B)

이송 중 사고가 나면 나만 손해 보는 거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절대 난 무리 안 해요. 몇 번 경험하면 그렇게 되요. 방어지요. 현실이 그래요. 불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일 생기면 다 냉정해지거든요. 누구 원망 못해 나도 그랬고 그냥 사고 안 나게 눈치껏 하지요 (참석자E)

1.6 “힘든 인간관계.”

참여자들은 조직 활동은 팀work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사, 동료, 부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힘들다고 한다. 현장에서 팀웍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협력적 분위기가 유도되어야 하는데 승진 관련 인사문제, 역할 모호성 등이 갈등요인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군 조직처럼 직급이 계급으로 구별되는 직무환경은 권위적 분위기로 경직되고 예민해져 관계에서 힘들음을 말한다(참석자A,C,D,G)

유난히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매사 부정적이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근무하는 것 정말 싫죠.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니 힘들죠. 중간관리자로서 분위기도 유도도 해야 하고..(참석자A)

현장에서 성차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야간 근무 시 식사 준 비는 여자인 내가 하는 걸로 당연히... 이것도 차별이죠. 센터장이 중재를 해주어야 하는데 못 해주니 힘들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싫죠.(참석자D)

이건 니가 잘하니까 해. 정말 내일도 많은데 그래서 잘 하기가 싫죠. 계속 시키니까. 화나도 참아야죠. 군 대량 같죠. 오래 있지 않을 거라 참아요(참석자G)

1.7 “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소진 경험.”

참여자 24시간 근무로 인해 신체적 소진과 동료갈등으로 감정소진을 경험하고, 사고현장에서 체력 한계를 순간 느낄 때 두려움은 공포라고 하였다. 무리한 업무수행지시로 심리적 버거움도 우울과 함께 소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석자A,B,D,E,G)

항상 출동 준비로 긴장하는 생활을 하는데 야간 근무 시 가면을 하죠. 출동이 유독 많은 날은 더 힘들고 그래서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 그만 둘 때가 됐구나 생각하죠. 슬퍼요. (참석자B)

지시한 업무가 정말 무리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어떡해요. 하려면 해야 되는 조직이라. (참석자D)

계급이 올라갈수록 위치도 달라지다보니 그동안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대원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 늘 긴장으로

몸이 굳고 멍치고, 예민해져요. 집에 가면 애들한테 같은 말이라도 통명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면 짜증을 내죠. 그러다 부부 싸움한 적도 많죠.. (참석자E)

2. 가족갈등

2.1 “가족에게 전이되는 직무 스트레스.”

참여자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술이나 운동, 도박, 과도한 운동 등으로 해소하며 가족에게 짜증, 분노 표출, 대화단절,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 부정적 표현과 감정이 가족에게 전이되고 있었다. 이런 행동을 알아차림 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면 그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여 해결되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치료의지가 있음을 표현하였다.(참석자A,B,D,E)

감정적으로 힘든 날이 있는데 이런 날은 전날 술을 엄청 마시게 되요. 비번 날은 하루 종일 방에서 잠만 자죠. 아이가 학교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모르고 방에서 나오지 않지요.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순간 화가 확 올라오면 말도 거칠어지고 부부싸움도 종종 하죠. 감정조절이 안돼요. 집에서만 그러지 근무할 때는 그럴 안 되지요. 그냥 와이프, 자식이 만만해서 그러지 사실 가족들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감정조절이 안돼요. 식구들이 힘들죠. 저도 문제가 많을 걸 하는데...지금은 애들이 상대 안 해 주지.(참석자A)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죠. 그런데 나도 정말 힘들고 지치거든요. 아들 유치원 보내고 근무하려면 잠을 자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들한테 짜증을 내는데 그럴 땐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죠.(참석자D)

2.2 “가족 대화단절로 우울 경험.”

참여자 대부분 교대근무, 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소진 경험, 출동대기로 인한 긴장 스트레스는 심리적·정서적으로 예민하게 된다. 이런 직무환경은 가족 간 원만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짜증, 일방적인 대화, 권위적이고 부정적 가장의 모습은 자녀와 부부대화기 부정적이며 대화단절로 정서적으로 가족에게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석자A,C,E)

집에 가면 강아지만 있죠. 아이는 바빠서.. 나랑 시간이 안 맞아서 서로 볼 시간이 없죠. 있어도 피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애 엄마하고 말하지. 퇴근하면 혼자 밥 차려 먹고 자요. 외롭죠. 허무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갱년기인지 슬퍼요 요즘은...(참석자A)

옛날에 무섭게 했지 지금도 애들 하는 것 보면 화가 나지만 참아요. 그나마 말 더 안 할까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 상담 받아보니 내 문제가 더 크다고 하니.. 화도 잘 내고, 사실 이 일이 힘들어 스트레스 받다 보니 아이들한테 자상한 아빠는 아니지 내가 알죠. 가난하게 살아와서 부족하지 않게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 참 힘들어요.(참석자 E)

3. 소명 의식

3.1 “사고현장 두려움 동료애로 극복.”

참여자 중 화재 현장에서 고립이나 사고 경험으로 공황장애를 경험하기도 했다. 공황장애는 불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퇴직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신체증상에 비해 산재처리 등 공식적 치료지원요구를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토로했다. 또한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고 견디며 공황장애는 동료나 가족 지지로 극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이나 화재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숨이 멎는 증상이 나타날까 하는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선발대로 나서지 못하는 속마음을 힘들게 표현하였다.(참석자A,E,F,G)

화재 현장에서 선발대를 놓쳐서 나 혼자 연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손만 휘젓고 있는데 초년시절 그 공포감이 엄청나죠. 그때 내 어깨를 잡아당겨 방향을 알려주는 동료가 있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참 몽클한 그런 것 뭐랄까 동료애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팀웍이 중요하지요.(참석자E)

잔불 진화하러 들어갔다 넘어지는 바람에 천장에 바로 내 앞에서 무너지는 데 아찔했죠. 넘어지는 바람에 살았지.. 동료가 날 불러서 주춤하는데 무너진 거야 눈물이 나오죠. 다 상황 종료하고 오는데 가족 생각이 나죠. 서로에 대한 책임감 더 생기고 그래요.(참석자G)

3.2 “고맙다는 말에 생기는 소명감.”

참여자들은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보람은 소명감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난폭한 행동, 욕설 등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진정성 있는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을 해 줄 때 그 한마디로 ‘천직’을 생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소명감을 느끼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참석자A,B,C,E)

소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회봉사직 이죠. 현장에서 내 몸 사리면서 구조할 수는 없으니 구조해야 할 사람만 보죠. 그래서 텅비는 거고 그뻐 두려움은 없어요. 생각할 틈도 없고, 몸이 반응하니까...(참석자B)

경우 없이 행동하는 민원을 상대할 때 정말 그만두자 생각이 열 번도 더 들다가도 출동해서 구조 활동 후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진정 고마움을 표현해 줄 때 천직이라고 생각하지요. 출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죠. 처우만 더 좋아진다면 (참석자 E)

3.3 “꿈을 이룬 직업.”

소방관은 어린 시절 꿈으로 이후 소방 관련 학과 전공 후 소방공무원 꿈을 이룬 직업이라고 하였으며 간호사 근무 후 이직했거나, 직업군인에서 늦게 소신 가지고 지원하여 높은 직무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직업 자부심이 높았다. (참석자A,B,F)

어릴 적 TV 프로그램을 보고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소방공무원이 되어 어머니가 좋아하셨죠. 어릴 적 꿈을 이룬지요.(참석자B)

간호사로 병원 근무하다가 지쳐 있을 때 친구 통해 소방공무원이 보람 있고 안정된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선택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만족해요.(참석자F)

4. 긍정적 가족 지지

4.1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한다.”

참여자들은 소방공무원인 된 아들, 소방공무원인 아버지를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줄 때 자부심과 소

명감 갖게 되며 책임감으로 근무를 한다고 한다. 소방 공무원인 아들을 주변에 자랑하시고 대단하게 여겨주시는 어머니를 봐서라도 열심히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다고 하였다.(참석자B,C,E,G)

장남으로 소방공무원한다고 고향 부모님은 매우 자랑스러워하시죠. 사실 좀 그렇죠.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니 효도한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집사람도 힘들어 하는 날 이해하고 안 건드리고 편안하게 해주려는 걸 느끼죠.(참석자 B)

제사나 집안 결혼식 등 참석 거의 못 하죠. 부모님이 많이 이해해 주시죠. 저번에 여행 중에 갑자기 비상 출동으로 여행을 중단한 적도 있었는데 가족들 이해 없었으면 힘들죠. 아파 없어서 더 좋았다고 해서 서운했는데 티 내지 않아서 사실 힘든 거 알죠. 그래서 참고 견디게 됩니다.(참석자E)

4.2 “가족이 있어 PTSD증상도 극복할 수 있다.”

참여자 대부분 PTSD증상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힘들어한다. 직무수행 중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 경우, 퇴직 또는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지지가 견디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PTSD증상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할 수 없어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의 회피와 증상을 부정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 있다는 낙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참석자B,C,E,F)

우울로 힘든 시기 있었죠. 처참한 사체 모습 보고 힘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동안 우울로 자살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고현장에 출동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 처참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준다는 것 이견이나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죠. 어머니생각, 가족생각 정말 많이 힘들었죠.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약 먹고 주변에도 알리고 도움 받았죠. 가족 생각하면 자살 생각 할 수 없었어요.(참석자 B)

사고지점을 지나면 그때 상황이 기억나고 기억이 반복 되요. 순간 멍해지는 경험도 하는 데 외상 후 스트

레스 진단받고 상담하고 치료받았죠. 지금은 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숨이 멎는 순간을 경험하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정신 차리자 다 짐도 하고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죠. 서로들 아니까 많이 고맙죠. 아직도 출동할 때 두려움 있죠.(참석자 D)

5. 나를 돌아보기

5.1 “치유 받고 싶은 마음.”

참여자들 중 사고장면에 대한 재기억으로 불안 정서를 표현하였다. 퇴직 이후 삶은 취미 등 평소 못한 여가 활동을 통해 보상받고 치유 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참석자E,G)

성격적으로 민원 상대하는 일이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퇴직 후엔 정말 맘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는 몰라요.(참석자C)

조용하게 카페운영 하면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쉬는 날이면 조금씩 혼자 수리해요.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몰랐어요. 그동안 힘들었어요. 수면장애로 수면제, 우울증 처방도 받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 그냥 골아 떨어져 정말 좋아요. 가족들한테도 골질 하지 않고 잘 하게 되고 그동안 식구들이 힘들었겠구나 생각도 들고, 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하고 싶어요.(참석자A)

5.2 “나를 위해 살고 마음.”

참여자 중 퇴직을 앞에 두고 심리적 불안과 나를 위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음을 표현하였다. 퇴직 이후를 구상하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으로 막연하게 두려움을 보였다. 퇴직 예정자들에 대한 심리정서 프로그램과 경제교육 등 다양한 교양 및 정보 교육지원으로 퇴직 이후 삶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 지원 필요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계속적 지원이 시행된다면 현재 불안을 잠재우고 남은 기간 직무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참석자A,C,E)

평상시처럼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순간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이러다 죽겠다 한 적이

있는데... 이후 정말 힘들어요. 다시 그럴까봐 겁나고요. 쉬고 싶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기회가 되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고 싶어요. (참석자G)

요즘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뭔가 이야기 하고 싶은 데 이야기 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요즘은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참석자D)

5.3 “소속이 없어진다는 것이 두렵다.”

평생을 소방공무원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 자부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소방공무원 직무에서 벗어난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참석자 A,C)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30년 가깝게 근무를 했는데 좋지만은 않고 아쉽고 그렇죠. 아직은 건강한테 이젠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우울하기도 기분이 가라앉아요. 막막함도 있고(참석자A)

정말 내 인생에 청춘을 여기서 다 보내며 결혼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다쳐서 입원도 하고 힘든 것도 많이 보고 보냈죠. 생각하면 참 힘들었는데 많이 아쉽죠. 그동안 잘 살아왔고 보람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고맙고, 감사하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참석자C)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직무수행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그 과정과 의미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직 소방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17개의 주제를 조직화하고 5개의 하위범주와 ‘스트레스발생경험’, ‘스트레스치유경험’, ‘퇴직 후 경험’의 3개 범주화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민원해결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강박적 불안, 우울감, 수면장애 등으로 경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위험성, 긴급성, 활동의 특수성, 팀워크, 불확실성, 교대근무 등으로 구분하였는데[19], 본 연구도 동일한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출동은 정서적 불안감, 집중력 저하, 무기력해짐, 의식적으로 충격적 상황을 피하려는 마음, 수면장애 등 심리적·신체적 증상 모두 직무수행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 대부분 출동대기를 위해 청사 내를 벗어날 수 없는 직무 환경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분석되었다[19][20]. 이런 근무환경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도 저하로 인해 산업재해증가 등 치명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12][29][30].

둘째,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업적 소명의식과 동료애, 가족 지지 등의 긍정 경험으로 상쇄되고 치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출동은 직무수행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만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가족지지가 동기부여가 되고 갈등해소를 통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포함된 가족지지와 모든 극한 상황을 함께 한 동료애는 치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무 환경에서 긍정 지지는 치유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정서적 건강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지지와 동료애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23][33]. 하여 이를 위해 소방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 가족으로서 긍정적 자부심 갖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소명감을 보이지만 퇴직 이후 삶에 대해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신체적 문제와 더불어 정서적·심리적 문제들로 발전되어 직업적 소명이나 동료애, 가족의 지지만으로는 치유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적 질환이나 공황장애, PTSD증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비특이성 질병이 보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퇴직 이후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소방공무원 소명의식으로 힘든 직무를 극복하고 보람을 경험한다. 하지만 직무로 지친 소진경험과

퇴직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은 급박한 일상에서 벗어난 삶을 찾고 싶은 양가감정을 보였다. 대부분 퇴직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은 소속이 없어 겪게 되는 우울로 이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독성물질 노출, 위험 상황 노출로 인한 직업적 질환, PTSD증상으로 생긴 정신건강에 대해 정당한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함에 대한 우울정서이다. 지역이나 소속에 따른 근무환경과 처우의 차별성,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퇴직이후 삶에 대한 불안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24].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치유를 위해 직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심리·정서 지원 확대 등 복합적이고 체계화된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는 현직 소방공무원의 현장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스트레스치유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에서의 한계점은 근무환경이 일반 공무원 조직보다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직무수행 경험에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데 한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점을 간과하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변화와 소방장비에 대한 발전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및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 둘째, 직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진에 대해 인식 부족과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소진 관리대책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 셋째, 심신지원 사업을 더욱 중점화, 개인화, 활성화가 요구되며 동시에 근무환경개선과 소방공무원복지가 보다 향상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소방기본법, 법률 제 11037호, 시행 2012.2.5.
- [2] 노경환,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 이종열, 박광욱, “직무스트레스요인과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행정총론, pp.331-356, 2011.
- [3] 이경호, “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pp.221-243, 2012.
- [4] 이종협,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 김성환,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과 자생각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6] W. Comeil, R. Beaton, S. Murphy, C. Johnson, and K. Pike, “Exposure to Traumatic incidents and prevalence of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urban fire fighters in two countri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iatry*, Vol.4, No.2, pp.131-141, 1999.
- [7] N. K. Rytwinski, M. D. Scur, N. C. Feeny, and E. A. Youngstrom, “The Co-Occurrenc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Among Individuals With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 meta-Analysi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26, No.3, pp.299-309, 2013.
- [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IV*, Washington DC:APA, 1994.
- [9] 김태우, 김규상, 안연순, “현장직 소방공무원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련성,” *대한산업의학학회지*, 제3권, 제22호, pp.378-379, 2010.
- [10] 임태호, “소방공무원의회복탄력성,” *소방청*, pp.3-113, 2017.
- [11] 소방청, *2018년도 소방청성과보고서*, 2018.
- [12] 김광석, 박정, 박부연, 김성길, 황은영, “소방관직무스트레스가 우울 및 피로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224-228, 2014.
- [13] 박정민, 김대성, 김행희, “직무환경이 소방공무원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제19권, 제1호, pp.25-49, 2012.
- [14] 문유석,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환경 유발요인,” *지방정부연구*, Vol.15, No.1, pp.119-141, 2002.

- [15] 최낙순, 김재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pp.481-501, 2011.
- [16] John W. Creswell, *질적 연구방법론*, 학지사, 2016.
- [17] J. W. Creswell, *질적연구방법론*, 학지사, 2010.
- [18] 최경호,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문학과 지성사, pp.41-45, 1997.
- [19] 김경식,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0] 김순진, 김환, *충격적 경험의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이상심리시리즈7*, 서울학지사, 2013.
- [21] 이영주, *소방공무원이 지각한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2]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11.
- [23] 김혜숙, *가족치료 및 이론과 기법*, 학지사, 2003.
- [24] 배점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리적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2011.
- [25] P. F. Cola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26] 신경림,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회동연수자료, pp.5-22, 2001.
- [27]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Manen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29권, 제6호, pp.1208-220, 1999.
- [28] 신경림, 고명숙, 고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옥, 노영희, 조명옥, 양진향,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29] V. Bhatia and R. K. Tandon, “Review, stress and the gastrointestinal tract,” *J. of Gastro & Hapato*, Vol.20, No.3, pp.332-337, 2005.
- [30] E. Wolf berg, “ Social crisis and occupational fatigue among health porfessionals : warnings and resources,” *Vertex*, Vol.54, No.14, pp.268-279, 2003.
- [31] 이숙진, 최낙현, 주창범, “여성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3호, pp.70-102, 2017.
- [32] 이혜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251-259, 2013.
- [33] 박승규, *소방공무원의 사망사건 외상경험의 어려움과 대처에 대한 질적연구*,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4] Robert K. Yin.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2016.

저 자 소 개

김 종 선(Jong-Sun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선문대학교 가족상담 치료학과(석사)
- 2019년 2월 : 선문대학교 통합의학과 가족상담(박사수료)
- 2017년 7월 ~ 현재 : 충남행복나 무가족상담연구소장

<관심분야> : 부부 및 가족상담, 모래놀이심리치료